

효성 산타 원정대, 저소득층 가정에 생필품



효성티앤에스(주)는 지난 5일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효성티앤에스 산타원정대' 행사를 열고 서울 수서동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쌀·생필품·아동용 겨울 패딩 등을 전달했다. <효성 제공>

국제청소년교육재단, 한전 방문 직무연수



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전남자연환경연수원(원장 안기권) 임직원 15명은 지난 6일 한전 본사를 방문, 강의와 홍보관 견학 등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전남 자연환경연수원 제공>

장성우체국 봉사단 독거 어르신 '사랑의 김치'



장성우체국(국장 김선희) 행복나눔 봉사단은 최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해 독거노인 12가구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광주은행 OB 개나리회 연탄 나눔 봉사



광주은행 OB 개나리회(초대회장 김혜경 WomenLeadership 대표 겸 남부대 겸임교수)는 최근 중흥동 독거 어르신 가구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은행 OB개나리회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6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오채중(광주시 자치행정국장)·양백련씨 장남 태환군, 전규식·박경옥씨 삼녀 훈정양=15일(토) 오후 5시 서구 광전동 웨딩그룹티더스 광주 5층 엘린홀. ▲허기석(광주세계수영대회조직위원회 시설숙박본부장)·김점옥씨 장남 웅근, 박해관·남미옥씨 장녀 명재양=16일(일) 오전 11시 50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제이아트 웨딩컨벤션 3층 알루체홀.

동창회

▲재광 여고 동창회(회장 배명재) 송년회=11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영효빌딩 1층 홀 010-2594-3826. ▲광주여고 동창회 이사회(회장 박귀례)=12일(수) 오전 11시30분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 호텔 5층 010-6266-8129. ▲광주북중 제18회 동창회 송년모임=18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 수정식당(호남동성당 옆) 010-5045-5171.

종친회

▲경주배씨 달성판서공파 재광 영암 시종 구산문중(회장 근영) 망년회=8일(토) 오후 6시 보광옥 식당(광주극장 옆) 010-4607-5773. ▲원주이씨 광주종친회 모임=14일(금) 광주시 동구 대인동 323-7 만수식당, 회장 이병재 010-2664-7000. ▲재광 나주 봉향 향우회회장 이문식 회장 취임식=18일(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JS 웨딩 컨벤션홀 1층.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철환)=11일(화) 오후 5시 30분 지원회의실 062-225-5636.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철환)=18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알림

▲국제로타리 3710지구 수련로타리를 령(회장 김경모) 나일도 지구총재 공식방문=11일(화) 오후 6시 광주시 서구 마루동 데일리웨딩컨벤션 010-8602-2004.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C(로고) 공모=7일까지, 만 19세 이상 광주시민과 광주지역 대학(원)생 등 개인 또는 팀(2인 이하) 센터 홈페이지(gjds.or.kr)참조.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시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 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미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료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모집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광주시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점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진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 실시. 062-526-3370.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본관 3중 특10호 故전규호 님(남/84세) 본관 4중 VIP장군 故송이점 님(여/91세) ... (Detailed obituary notice with names, dat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funeral home.)

'詩 읽어주는 남자'가 된 공학 기술자

올해 전국 시 낭송대회 4관왕 광주 노경호 씨

산업안전 등 공학 자격증만 6개 10년간 합창 지휘·악기 연주도 매일 서른번씩 시 낭송 연습 "도전해야 내 안의 재능 찾아"

"50여 년을 살아도 자신의 재능을 모르고 지나쳐버릴 수 있어요. 제 또래들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한 대기업의 관리직을 맡고 있는 노경호(54)씨는 최근 '시 낭송가'라는 새로운 호칭을 얻었다. 그는 올해 열린 전국 단위 시 낭송대회에서 4관왕을 차지해 광주지역 시 낭송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그가 처음 대상을 거머쥔 대회는 지난 6월 열린 '5회 부안 변산마실길 전국 시 낭송대회'였다. 60명이 넘는 전국 참가자들 사이에서 백

석의 '고독'으로 1등을 차지한 그는 자신감이 불어 그로부터 한달 뒤 열린 '1회 보령 해변시인학교 전국 시 낭송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10월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열린 '3회 대전시와 소리 문학낭송대회'와 '4회 완도 전국 시 낭송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면서 노씨는 '전국에서 알아주는' 시 낭송가로 인정받았다. '제조업계 종사자'와 '시 낭송가'라는 간극을 매우는 데는 '음악'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중학생 시절부터 합창부 지휘에 나설 정도로 음악에 소질이 있던 노씨는 원래 성악가를 꿈꿨다. 하지만 발성에 뜻밖의 문제를 겪어 꿈을 일찍 포기해야 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그는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시간을 내 관련 학위를 따고 10년 동안 민간 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했다. 산업안전과 공학 관련 자격증을 6개 가지고 있는 노씨는 음악 부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

올린, 첼로, 오보에, 클라리넷, 탐파니 등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여럿 있다. "저에게는 '서른 번의 규칙'이 있어요. 아침·점심·저녁으로 나눠 열 번씩 시 낭송을 연습하는 거죠. 점심 자투리 시간에는 소리내지 않고 시를 눈으로 음미하기도 해요. 시 낭송 대회가 있기 3주 전부터는 연습량이 세 배 늘어나요. 하루 100번씩 낭송해야 그 시를 완전한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 낭송대회가 적용하는 제한시간 3분여 동안 시에 담긴 의미를 완벽히 전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노씨의 설명이다. 짧은 시간 동안 한 편의 시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노씨는 표정과 몸짓, 호흡, 음의 고저장단, 끊어 읽기 등을 8개월에 걸쳐 훈련하고 있다. 노씨는 시 낭송 입문에 도움을 준 동갑내기 아내 박복숙씨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는 "시 낭송을 함께 연습하는 아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가족·지인과 함께 우리 시가 지닌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법사랑 외국인위원회 광주 다문화 가정 후원

법무부 법사랑 외국인위원회(위원장 김명근·금호주택 대표이사)는 6일 광주지역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후원금을 쾌척했다. 이날 김명근(사진 왼쪽 두번째) 위원장은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성금 전달식에 참석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각 100만원씩 전달될 예정으로, 지역 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명근 위원장은 "오늘 전달되는 성금이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소외감을 덜어주고 이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명근 위원장은 지난 7월 슬리랑카 해외구호사업 후원금으로 500만원, 11월(사)아시아방송공동체에 북한 이주민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독립운동 후손 고려인동포와 다문화가정, 국내이주민을 위한 후원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1억원을 완납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광주 83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안경환 조선대 교수, 베트남 우호훈장 수상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재형) 외국어 대학 영어과 안경환(사진 왼쪽)교수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한 중인 응우옌티킴응언(여·64·오른쪽) 베트남 국회의장으로부터 '베트남 우호훈장'을 받았다. 베트남 우호훈장은 베트남과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단체에 베트남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안경환 교수는 지난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간 우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3년 문화취장, 2004년 평화우호취장과 호찌민시 휘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4년 10월 12일에는 프랑스의 식민 재배를 종식시킨 디엔비엔푸 전승 60주년 기념 및 하노이 수복 60주년 기념식에서 하노이 명예시민으로 추대된 세계 12명 가운데 유일한 한국인이다. 이날 훈장 수여식에 참여한 응언 의장은 남



부 메콩강 유역의 건너 출신 국회의원으로 정치국원이자 제8대 국회의장으로 베트남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이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동구, 금연환경조성 전국 최우수

광주 동구(정장 임택·사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8년 금연환경 조성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동구는 6일 서울에서 열린 '지역사회 금연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구는 비흡연자 직장내 간접흡연 노출률이 전국 대비 약 2배 낮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과 협업체 ▲대상자 수요에 맞는 자원 발굴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기업 주도 금연구역 지정 ▲소규모 사업장대상 이동건강서비스 지원 및 금연 환경조성 등에 힘썼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태균 호남유권자 최우수 도의원

김태균(더불어민주당·광양2·사진) 전남도의회 경제관공문화위원장이 '2018 호남유권자연합 최우수 도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정확한 자료 분석과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다. 특히 '청년구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의제를 적극 입법화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큰 힘을 보탰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 의원은 "호남 유권자들이 직접 선정한 상이라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